

현대불교의 부산불교 이야기

‘특화 프로그램’ 마음 끌기 적중

“절 밑에 45년을 살았지만 초청을 받아 스님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올 2월 범어사에서 열린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한 주민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찰과 주민의 만남을 준비할 때만 해도 범어사와 사하촌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그러나 범어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새 봄 햇살 아래 얼음 녹듯 녹아내렸다. 범어사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꾸준한 진행해 온 템플스테이였지만 그날 주민들과 보낸 시간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뜻 깊었다는 기억이다.

이처럼 템플스테이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보여준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의 시대에 잘 맞도록 프로그램화 한 것이며 우리 한국의 전통과 사찰 문화,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게 하는, 들도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단 한사 말이라도 더 불교를 알기 쉽게 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때 문이다.

말리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사찰 고유의 정서를 보여주고, 5천년 역사의 민족성과 기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고자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초청’ 템플스테이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 시내에 있는 중, 고등학교생들 중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2-3명씩 50명, 구 단위로 2-3명씩 50명으로 나눠 2차례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전 일인지 몇몇 학교와 구청을 제외하곤 마감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와 구청복지과로 전화를 해 봤더니, 구청 담당자들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소년소녀가장들의 연락처조차 알려주길 꺼려했다. 하소연 끝에 동사무소 연락처를 받아 연락한 끝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인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범어사는 그 외에도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초청해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복잡한 일상을 푼다고 직장

② 템플스테이 · 놀토 프로그램 등 시대 요구 담는다

의 동료와 상하간의 불신불만을 해소하게 하는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관과 사찰의 만남’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는 부드러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보다 자원 봉사자들이 더욱 내실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득한다는 것을 템플스



혜수 스님 (범어사 연수국장)

는 것이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의 행이었다.

범어사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계나 절망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두고 또 되는 방향을 찾아 보면 되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사하촌 주민 · 공무원 등 테마별 개최로 인기 수련시설 태부족... 별도의 수련공간 갖춰야 어린이 · 청소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절실



범어사가 지난 2월 주최한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에서 사중스님들과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됐다.

자원봉사는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보살행이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출현하셨더라면 분명히 보살행을 자원봉사자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을 받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넘기 힘든 부분이 공간의 문제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생활공간이 주가 된 전통 사찰에서, 일반인들의 템플스테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여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생

에만 그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부족한 사위시설이나 낙후된 화장실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진행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비단 범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는 토요일에 ‘염색’ ‘종이 접기’ ‘과학교실’ ‘영어 뮤지컬’ ‘선무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흥법사의 경우도 공간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놀토’에 질로 몰려드는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 어 스님 방까지 내어주고 있다. 이처럼 사찰이 이제 스님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심어져 외국인들에게조차 개방돼 불교의 가르침을 알리 야 한다면 수행공간과 구별되는 수련공간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여러 사찰들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흥법사의 놀토 프로그램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 들의 발길도 사찰로 향하게 만들고 있 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불교와의 인연 을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 놀토 프로그램 속에 자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음사의 경우 상담과정이나, 호스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해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있다. 또 풍류 산공인 입구에 위치한 미타선원은 시민 선방을 24시간 개방해 수행도량의 면모 를 갖추는 한편, 다양한 문화 강좌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일 한차례 청소년 들을 위한 거리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를 현실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앞으로 범어사도 현 시대의 다양한 욕 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사단법인 동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의 자문을 구해, 어린이들을 위한 노는 토요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다. 방학동안 일차제 프로그램을 준비한 다면 범어사 곳곳에서 아이들의 재잘거 립과 웃음을 대할 날도 머지않았다.

그 어린이의 웃음이 바로 희망이며 부처님의 본래면목임을 믿으며 더위와 함께 찾아온 여름수련회 준비에 소홀함 이 없도록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을 체 비를 서둘러야겠다.



제1회 금강노인복지관의 다례시연 모습.

배우고 익힌 솜씨 뽐내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제1회 금강은빛문화축제’ 개최

경남 마산 금강노인복지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7월 8일 마산 시청 대강당에서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제1회 금강은빛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금강은빛 문화축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난 1년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축제 한마당.

진도북춤, 가야금 중창, 금강어린이집 원 아들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복지관 다도 반의 다도시연, 은빛사람놀이반의 사람놀이 한마당, 건강댄스반의 실버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사회복지법인 금강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처음 복지관을 개원 했을 때 걱정이 많았지만 어르신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1년을 맞았다”며 “세상의 여러 중생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세상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금강노인복지관은 지난해 6월29일 개관 해 국어교실, 한국무용,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건강검진, 무료점심급식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내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불교단체에 법회 장소 제공 부산 장원선원 11일 개원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이사장 김수현)이 부산 동래에 위치한 장원 불교의 집 3층에 법당을 조성하고 7월 11일 장원선원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장원선원은 앞으로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파라미타, 부산불교여성개발원 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의 법회장 소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직장 불자들이 관심을 높이는 도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팔상 · 독성 · 나한전 부산시 유형문화재 63호 지정

부산 범어사의 팔상전 · 독성전 · 나한전이 7월 3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63호로 지정됐다.

1706년 이래 현 위치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는 이 전각은 천태문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각각 팔상전과 나한전이란 별개의 건물로 존재했으나 1906년 1년간의 공사를 통해 현재 모습인 하나의 전각으로 만들어졌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염주!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로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에서 국내 특색으로 반인,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을 추가 주문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기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지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기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서 기쁨을 받으실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규약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혀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송부(카드결제)로 보내 드려도 됩니다. 배송비 별도입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동구 권문동 177 대동 8/D 406호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가격 245,000원
생명의 빛 건강의 기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복원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염주가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염주 불이 70-80℃의 고열이 발생 할때 암이 백색 김수이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갖는 효능으로 속보다도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벅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 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상기개생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적외선이 백색 김수이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